

## 자료 해석 영역

1. 다음 <표>는 2004년과 2014년의 전국의 지역별·산업별 고용인원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merz?

〈표〉 지역별 · 산업별 고용인원

(단위: 천명)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2004년	2014년	2004년	2014년	2004년	2014년	2004년	2014년
농업·임업 ·어업	194	166	434	358	650	484	547	444
제조업	2,170	2,029	399	538	1,329	1,441	279	322
건설업	893	896	244	239	456	424	225	236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2,932	3,142	729	714	1,566	1,445	634	588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3,297	4,825	813	1,271	1,512	2,018	692	965
전기·운수 ·통신·금융	1,411	1,778	290	317	595	667	255	279
합계	10,897	12,836	2,909	3,437	6,108	6,479	2,632	2,834

주: 전국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성됨.

<보 기>

- ㄱ. 2004년 대비 2014년에 전국고용인원은 약 3,040천명 증가하였다.
- ㄴ. 2004년 대비 2014년에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의 고용증가인원을 합친 것보다 적다.
- ㄷ. 2004년 대비 2014년에 제조업의 전국고용인원은 증가하였다.
- ㄹ. 2004년 대비 2014년에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전국고용인원은 감소하였다.

- ①  $\neg$ ,  $\perp$   
②  $\neg$ ,  $\top$   
③  $\perp$ ,  $\top$   
④  $\perp$ ,  $\bot$   
⑤  $\top$ ,  $\bot$

2. 다음 <표>는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아동패널의 2010년과 2013년의 부모구성을 교차분석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표〉 부모구성의 변화

(단위: 건)

		2013년 부모구성						
		1	2	3	4	5	6	계
성별	1	1,843	13	23	5	2	1	1,887
	2	19	84	1	5	0	9	118
	3	34	1	113	0	1	1	150
	4	15	5	0	6	0	1	27
	5	5	0	2	0	7	0	14
	6	3	5	3	0	0	15	26
	계	1,919	108	142	16	10	27	2,222

주: 1=친아버지+ 친어머니, 2=친아버지만, 3=친어머니만, 4=친아버지+ 새어머니, 5=친어머니+ 새아버지, 6=부모님 모두 안 계심.  
1~6 이외의 부모구성은 없음.

<보 기>

- ㄱ. 주어진 <표>에서 2010년과 2013년의 부모구성이 동일한 경우는 2,068건이다.
- ㄴ. ‘친아버지만’ 부모구성이 ‘친어머니만’ 부모구성에 비해서 2010년 대비 2013년에 부모구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이 높다.
- ㄷ. 2010년에 ‘친아버지+친어머니’ 부모구성을 가진 아동패널 중 95% 이상이 2013년에도 동일한 부모구성을 유지한다.
- ㄹ. 2010년과 2013년 모두 부모의 구성유형 중 ‘부모님 모두 안 계심’ 부모구성이 두 번째로 적다.

- ①  $\neg$ ,  $\perp$   
②  $\neg$ ,  $\top$   
③  $\perp$ ,  $\top$   
④  $\perp$ ,  $\bot$   
⑤  $\top$ ,  $\bot$

3. 다음 <표>는 A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A국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추이

연도	수출액 (억달러)	수출량 (백만톤)	수입액 (억달러)	수입량 (백만톤)	A국 총 수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2000	96.7	15.0	51.5	7.7	5.6
2001	83.9	14.7	45.1	7.6	5.6
2002	92.7	15.8	47.5	8.2	5.7
2003	119.2	17.2	58.2	8.6	6.1
2004	170.2	18.1	80.2	9.7	6.7
2005	208.1	19.6	95.1	9.9	7.3
2006	241.0	20.8	103.9	9.9	7.4
2007	288.2	22.9	116.2	10.4	7.8
2008	321.2	23.0	123.2	9.5	7.6
2009	274.7	26.0	95.4	10.0	7.6
2010	357.2	26.3	133.0	10.6	7.7
2011	455.9	27.4	165.0	10.5	8.2
2012	458.8	29.1	159.5	10.3	8.4
2013	483.8	30.8	170.2	11.0	8.6
2014	482.1	32.1	164.5	10.8	8.4
2015.1.~10.	319.7	27.9	114.2	9.4	7.3

주: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수출단가 =  $\frac{\text{수출액}}{\text{수출량}}$ , 수입단가 =  $\frac{\text{수입액}}{\text{수입량}}$

<보 기>

- ㄱ. 주어진 <표>에서 석유화학제품은 매년 무역수지 흑자액이 증가한다.
- ㄴ. 2012년 A국의 총 수출액은 200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 ㄷ. 2000~2003년 매년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으며, 수출단가 역시 수입단가보다 높다.
- ㄹ. 2015년 11~12월 석유화학제품의 월간 수출액이 1~10월 평균과 같게 유지된다면, 2014년에 비해 2015년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100억달러보다 적게 감소했다.

- ①  $\neg$ ,  $\perp$   
②  $\neg$ ,  $\top$   
③  $\perp$ ,  $\top$   
④  $\perp$ ,  $\bot$   
⑤  $\top$ ,  $\bot$

4. 다음 <표>는 2005~2014년 OECD 주요국의 한국 대비 물가수준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연도별 OECD 주요국의 한국 대비 물가수준  
(단위: 한국=100)

연도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헝가리	72	75	91	116	106	92	84	81	75	67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국	116	106	107	152	129	123	123	116	116	120
일본	145	129	128	224	184	184	189	158	127	116
독일	128	128	139	181	164	141	139	129	131	123
이탈리아	119	119	139	185	168	130	128	131	132	123
캐나다	126	114	131	152	149	161	157	151	138	136
프랑스	127	127	143	188	170	152	149	137	139	131
영국	127	132	141	150	138	149	161	138	147	150
뉴질랜드	124	113	131	139	150	153	154	155	150	147
스웨덴	136	143	156	180	168	166	164	162	157	144
호주	122	118	137	154	174	194	197	193	162	156

주: 한국의 물가를 100으로 할 때 주요국의 물가수준을 나타낸 것임.

<보 기>

- ㄱ. 한국과 영국은 2008년 대비 2014년 물가상승률이 동일하다.
- ㄴ. 2012년 이후 매년 한국이 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면, 일본의 경우 2012년 물가에 비해서 2013년 물가는 20% 미만의 감소율을 보인다.
- ㄷ. 주어진 국가들 중에서 2010년 이후 매년 헝가리를 제외한 국가들의 물가수준은 한국보다 높았다.
- ㄹ. 주어진 국가들 중에서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물가가 상승한 국가는 1개국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5. 다음 <표>는 2011~2015년의 국제원자재 가격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표>와 <보기>를 근거로 하여 A~F에 해당하는 품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2011~2015년 국제원자재 가격  
(단위: \$, %)

품목	2011년 가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격	전년 대비	가격	전년 대비	가격	전년 대비	가격	전년 대비
A	1,869	2,034		2,169	6.6	2,202		2,168	
B	6,878	6,748	-1.9	7,048		7,070	0.3	6,857	
C	2,101	2,199		2,338		2,348	0.4	2,266	-3.5
D	2,164	2,329		2,522	8.3	2,562	1.6	2,426	
E	21,930	22,574	2.9	23,829		24,449	2.6	25,140	2.8
F	16,928	18,123	7.1	21,049		21,399		19,709	-7.9

주: 전년대비 증가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보 기>

- 2011~2015년 동안 매년 알루미늄의 가격은 니켈 가격의 15% 미만이다.
- 주석은 2012~2015년 동안 매년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하였다.
- 2015년에 전년대비 가격하락률이 가장 큰 품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연이 두 번째이다.
- 2014년에 전년대비 가격변동률이 가장 큰 품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알루미늄이 네 번째이다.
- 구리의 가격은 2011~2015년 기간 중 2014년에 가장 높고 2012년에 가장 낮다.
- 2013년에 전년대비 가격변동률이 가장 작은 품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구리-주석-납 순이다.

- | A      | B  | C  | D    | E  | F  |
|--------|----|----|------|----|----|
| ① 알루미늄 | 구리 | 납  | 주석   | 니켈 | 아연 |
| ② 알루미늄 | 구리 | 납  | 아연   | 주석 | 니켈 |
| ③ 알루미늄 | 니켈 | 아연 | 납    | 구리 | 주석 |
| ④ 아연   | 구리 | 납  | 알루미늄 | 주석 | 니켈 |
| ⑤ 아연   | 니켈 | 구리 | 알루미늄 | 주석 | 납  |

6. 다음 <표 1>, <표 2>, <그림>은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박사학위 소지자의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박사학위 소지자의 취업실태

(단위: 명, %)

분류		사례수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합계
성별	남자	167,817	93.8	1.5	4.7	100.0
	여자	52,268	85.4	5.6	9.0	100.0
연령	15세~34세	10,866	94.6	0.1	5.3	100.0
	35세~39세	43,701	91.6	4.0	4.4	100.0
	40세~49세	82,960	95.9	2.2	1.9	100.0
	50세~59세	56,709	96.1	1.7	2.2	100.0
	60세~69세	25,849	68.0	3.5	28.5	100.0
전공	자연과학	34,304	91.6	1.9	6.5	100.0
	공학·기술	68,975	96.6	1.2	2.2	100.0
	의학·보건학	47,935	94.8	1.8	3.4	100.0
	농학	6,479	89.2	2.6	8.2	100.0
	사회과학	35,493	86.5	4.0	9.5	100.0
	교육학	9,237	80.1	7.4	12.5	100.0
	인문학	14,281	82.8	4.2	13.0	100.0
	예술학	3,381	81.2	6.9	11.8	100.0
전체		220,085	91.8	2.5	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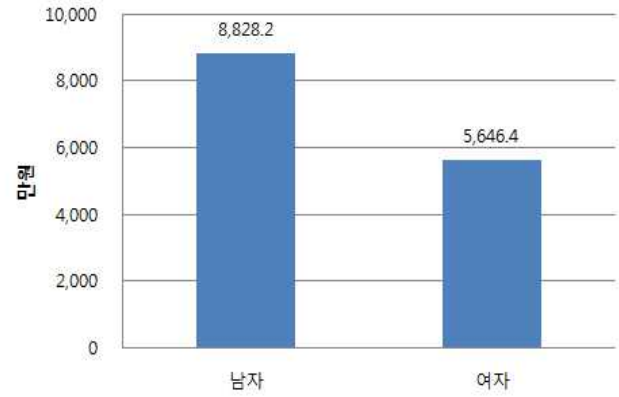
<표 2> 취업 상태인 박사학위 소지자의 고용부문

(단위: 명, %)

분류		사례수	민간기업	공공부문	대학(교)	기타	합계
성별	남자	157,333	38.2	17.2	38.6	6.0	100.0
	여자	44,648	16.8	15.1	56.4	11.7	100.0
연령	15세~34세	10,275	56.1	22.4	16.5	5.0	100.0
	35세~39세	40,049	30.4	22.5	37.7	9.3	100.0
	40세~49세	79,595	35.4	16.0	42.5	6.1	100.0
	50세~59세	54,472	29.6	15.5	47.8	7.1	100.0
	60세~69세	17,590	30.6	8.0	52.2	9.3	100.0
전공	자연과학	31,436	18.6	22.3	46.8	12.2	100.0
	공학·기술	66,639	43.5	21.5	31.7	3.3	100.0
	의학·보건학	45,451	56.5	6.0	32.6	5.0	100.0
	농학	5,782	17.0	31.5	49.4	2.1	100.0
	사회과학	30,709	18.3	20.8	53.2	7.7	100.0
	교육학	7,399	0.0	15.7	66.3	18.0	100.0
	인문학	11,818	4.2	3.9	76.6	15.4	100.0
	예술학	2,747	1.0	0.0	73.4	25.6	100.0
전체		201,981	33.5	16.8	42.5	7.2	100.0

주: <표 1>, <표 2>의 수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그림> 취업 상태인 박사학위 소지자의 평균 연간소득 남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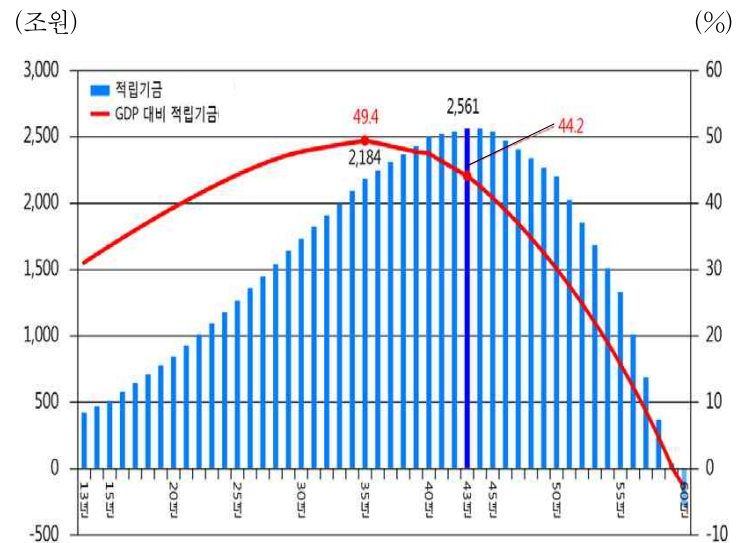
<보 기>

- ㄱ. 전체 박사학위 소지자 중 대학(교)에 고용된 사람은 40% 이상이다.
- ㄴ. 민간기업에 고용된 15~34세 박사학위 소지자 수는 민간기업에 고용된 60~69세 박사학위 소지자 수보다 적다.
- ㄷ. 취업한 박사학위 소지자 전체의 평균 연간소득은 8,000만원 이상이다.
- ㄹ. 대학(교)에 고용된 박사학위 소지자의 전공분포를 볼 때, 가장 비중이 높은 전공은 공학 기술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7.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 추이 예측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국민연금 적립기금 규모 추이 예측



주: X축에서 '13년'의 의미는 2013년이라는 것임.

- ①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도에 거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때의 GDP는 5,800조원 이하로 예측된다.
- ② 우리나라는 2022년에 GDP가 2,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 ③ 우리나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규모와 GDP 대비 적립기금 비율은 2035년까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2043년부터 2060년까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 ④ 2050년 우리나라 GDP는 7,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 ⑤ GDP 대비 적립기금이 정점에 도달할 때의 GDP 규모는 4,400조원 이상으로 예측된다.

8. 다음 <표>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근로유형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전체	남성	여성
임금근로	186	206	167
상용	201	222	181
임시	127	131	124
일용	111	123	100
비임금근로	187	271	179

<표 2>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원, %)

		월평균 근로소득			대기업 대비 소득수준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사업체 규모	10명 미만	151	172	140	(A)	66	68
	10~29명	174	194	159			
	30~99명	181	192	171		(B)	(C)
	100~299명		208		83	80	88
	300명 이상 (대기업)	236	260	205	100	100	100

<보 기>

- ㄱ. 상용근로자의 남녀 간 월평균 근로소득격차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남녀 간 월평균 근로소득격차보다 크다.  
 ㄴ. (A)는 67%보다 작다.  
 ㄷ. 남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80%를 넘는다.  
 ㄹ. 100~299명의 사업체에서 남녀 간 월평균 근로소득격차는 30만원 이상이다.  
 ㅁ. (C)는 (B)보다 크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9. 다음 <표>는 공공기관 고용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2010~2014년 공공기관 고용 추이

(단위: 명, %, %p)

	2010년 (A)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B)	B-A
상임임원	793 (0.2)	811 (0.2)	836 (0.2)	827 (0.2)	834 ( )	41 (0.0)
정규직	246,802 (70.3)	251,735 (69.2)	255,302 (68.1)	261,254 (67.9)	266,563 ( )	19,761 (-2.7)
무기계약직	9,642 (2.7)	10,490 (2.9)	11,904 (3.2)	15,441 (4.0)	17,948 ( )	8,306 ( )
비정규직	38,100 (10.8)	41,608 (11.4)	45,368 (12.1)	44,431 (11.5)	43,685 ( )	5,585 (0.3)
소속외인력	55,923 (15.9)	59,229 (16.3)	61,313 (16.4)	63,060 (16.4)	65,244 ( )	9,321 ( )
합 계	351,260 (100.0)	363,873 (100.0)	374,723 (100.0)	385,013 (100.0)	394,274 (100.0)	43,014 (0.0)

주: 괄호 안의 값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보 고 서>

㉠ 2014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고용인원은 39만 4,274명이고, 이중 ‘정규직’이 26만 6,563명으로 가장 많으며 6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속외인력’의 경우 6만 5,244명으로서 전체 인원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4만 3,685명으로서 11.1%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무기계약직’의 경우 1만 7,948명으로 5%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임임원’의 경우 834명으로 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2014년 사이의 공공기관 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고용인원수는 매년 꾸준히 늘었으며, 고용유형별로 보더라도 모든 유형에서 고용인원수가 증가하였다. ㉢ 다만 ‘정규직’의 경우 고용인원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전체 고용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 2010년 대비 2014년에 고용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2년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2013~2014년 동안 1만명 이상의 비정규직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10. 다음 <표>는 2004~2013년 우리나라의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우리나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 추이  
(2010년=100)

연도 \ 지수	순상품교역 조건지수	소득교역 조건지수	수출물가지수
2004	145.94	82.21	101.11
2005	134.54	80.55	106.50
2006	122.22	84.70	104.46
2007	113.15	88.64	105.01
2008	104.98	86.08	110.55
2009	105.00	86.06	92.86
2010	100.00	100.00	100.00
2011	89.15	101.52	104.72
2012	87.03	104.62	100.88
2013	89.56	112.84	98.98

<정 보>

- 순상품교역조건지수 =  $\frac{\text{수출물가지수}}{\text{수입물가지수}} \times 100$
- 소득교역조건지수 =  $\frac{\text{수출금액지수}}{\text{수입물가지수}} \times 100$
- 수출금액지수 = (수출물가지수 × 수출물량지수) ÷ 100

<보 기>

- ㄱ. 2009~2012년 동안 우리나라의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추이를 보면 하락추세임에도 소득교역조건지수가 상승추세인 것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지수가 상승추세임을 알 수 있다.
- ㄴ. 2004~2013년 동안 수입물가지수가 2010년보다 큰 연도는 2011년, 2012년, 2013년 3개 연도이다.
- ㄷ. 2013년에는 수출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의 전년대비 증감방향이 다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11. 다음 <표>는 A사 전체 사원의 SNS 이용 실태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A사 사원의 SNS 이용 실태

기기 코드	성명	SNS 종류	SNS 활용 형태	SNS 가입날짜	기기 구입비	앱 구입비
S-232	이훈병	페이스북	소통	2013-08-01	440,000원	6,500원
S-213	김미자	트위터	소통	2014-02-02	420,000원	12,000원
T-432	정미진	페이스북	교육	2014-01-15	400,000원	10,500원
P-321	박명수	블로그	교육	2015-02-19	550,000원	14,500원
S-121	김영호	트위터	소통	2013-10-10	380,000원	6,500원
T-214	이정호	페이스북	취미	2014-02-28	440,000원	14,500원
P-321	김숙자	트위터	교육	2014-01-10	480,000원	18,000원
P-412	박진수	블로그	취미	2013-09-11	580,000원	10,500원

- 주: 1. 기기코드 첫 글자가 S이면 스마트폰, P이면 컴퓨터, T이면 태블릿 PC를 통해 SNS를 이용함을 의미함.  
2. 각 사원은 SNS를 한 종류만 사용하고 SNS 활용형태도 하나임.

<보 기>

- ㄱ. A사 사원 중 스마트폰을 통한 SNS 사용자의 평균 기기 구입비는 42만원을 넘는다.
- ㄴ. A사 사원 중 블로그를 이용하거나 SNS 가입날짜가 2014년 2월 1일 이후인 사람은 5명이다.
- ㄷ. 2014년에 SNS에 가입한 A사 사원 중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원은 없다.
- ㄹ. 2013년도에 SNS에 가입한 A사 사원의 평균 앱 구입비보다 SNS 활용 형태가 교육인 사원의 평균 앱 구입비가 더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2. 다음 <표>는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2005	75,011	7,075
2006	93,786	10,419
2007	110,362	14,609
2008	122,552	22,525
2009	125,087	39,666
2010	141,654	49,938
2011	144,681	60,671
2012	148,498	68,404
2013	150,865	77,425
2014	150,994	85,507

## <보 기>

- ㄱ. 결혼이민자 수의 증가율은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 ㄴ. 2006~2014년 동안 결혼이민자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06년이다.
- ㄷ. 2006~2014년 동안 혼인귀화자가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연도는 2011년이다.
- ㄹ. 2006~2014년 동안 연도별 혼인귀화자의 증가율과 결혼이민자의 증가율 간의 차이는 매년  $\pm 10\%$  이하이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neg, \sqsupset$   
④  $\sqsubset, \sqsupset$   
⑤  $\sqsubset, \sqsupset$

13. 다음 <표>는 K리그 32라운드까지의 경기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32라운드까지의 경기 결과

순위	구단	경기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1	전북	32	68	21	5	6	52	32
2	수원	32	57	16	9	7	49	34
3	포항	32	53	14	11	7	41	28
4	성남	32	51	13	12	7	36	29
5	서울	32	51	14	9	9	41	35
6	인천	32	45	12	9	11	31	28
7	제주	32	43	12	7	13	48	48
8	전남	32	42	10	12	10	38	40
9	울산	32	39	9	12	11	42	39
10	광주	32	35	8	11	13	29	36
11	부산	32	24	5	9	18	27	47
12	대전	32	12	2	6	24	27	65

주: 승점은 각 경기마다 승리 시 3점, 무승부 시 1점, 패배 시 0점이 부여됨.

<정 보>

- 정규라운드는 총 33라운드로, 각 구단은 팀당 33경기를 치른 후 승점에 따라 1~6위까지는 스플릿 A, 7~12위까지는 스플릿 B로 나눈다.
- 정규라운드 이후 열리는 스플릿라운드는 총 5라운드로, 각 구단은 같은 스플릿 내의 구단과 경기하게 되며, 팀당 5경기를 추가로 치르게 된다.
- 최종 순위는 정규라운드와 스플릿라운드의 승점을 합하여 승점이 높은 순으로 정해진다. 다만, 스플릿 A에 속한 구단의 승점이 스플릿 B에 속한 구단의 승점보다 낮더라도 스플릿 A에 속한 구단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 순위는 승점이 높은 순으로 정해지며, 승점이 같을 경우 득실차, 다득점, 다승 순으로 정해진다.
- 33라운드에서는 성남-인천, 제주-전북, 전남-서울, 광주-수원, 포항-부산, 대전-울산이 각각 경기한다.

<보 기>

- ㄱ. 울산이 남은 정규라운드 1경기와 스플릿라운드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면 최종 순위에서 포항보다 높게 시즌을 마감할 수 있다.
- ㄴ. 인천이 33라운드에서 무승부 이상을 거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상위 스플릿으로 진출한다.
- ㄷ. 전북은 33라운드에서 지더라도, 스플릿라운드에서 수원을 이기게 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다.

- ①  $\neg$   
②  $\sqsubset$   
③  $\neg, \sqsubset$   
④  $\sqsubset, \sqsubset$   
⑤  $\neg, \sqsubset, \sqsubset$

14. 다음 <표>는 우리나라 특송업체 현황 및 특송물품 통관실적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우리나라 특송업체 현황

(단위: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특송업체 수	41	47	48	60	78

〈표 2〉 우리나라 특송물품 통관실적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구분 연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4,749	129	780	409	3,248	6,251	8,777	6,789
2011	5,726	182	734	403	5,045	10,921	11,505	11,506
2012	6,912	306	644	347	6,585	13,554	14,141	14,207
2013	8,190	443	596	347	8,935	14,343	17,721	15,133
2014	11,376	706	571	330	10,642	14,861	22,589	15,897

주: 우리나라 특송물품 통관은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로 구성되며 모두 우리나라 특송업체에 의해 이루어짐.

<보 기>

- ㉠. 2011~2014년 우리나라 특송업체 수와 전체 특송물품 통관 금액은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 ㉡. 2012~2014년 우리나라 특송업체 1개당 전체 특송물품 통관 건수는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 ㉢. 2010~2014년 우리나라 목륙통관, 일반신고의 건수대비 금액이 가장 큰 연도는 각각 2014년, 2011년이다.
- ㉣. 2014년 주어진 통관실적에서 건수대비 금액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일반신고이다.

- |                                                                               |                                                   |
|-------------------------------------------------------------------------------|---------------------------------------------------|
| ① $\neg, \perp$<br>③ $\sqsubset, \sqsupset$<br>⑤ $\neg, \sqsubset, \sqsupset$ | ② $\neg, \sqsubset$<br>④ $\neg, \perp, \sqsupset$ |
|-------------------------------------------------------------------------------|---------------------------------------------------|

15. 다음 <표>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4년 문화재 상시관리 실적 현황

(단위: 수, 건)

지역	관리대상	실적 (=A+B+C)	모니터링 (A)	제초청소 (B)	경미수리 (C)
서울	45	355	-	270	85
부산	13	682	-	661	21
울산	86	524	-	517	7
세종	10	31	-	28	3
경기	517	1,219	-	-	1,219
강원	442	7,225	1,589	5,133	503
충남	541	9,937	1,544	6,729	1,664
제주	169	3,672	52	3,463	157
대구	251	1,794	296	1,002	496
대전	167	2,336	231	1,915	190
광주	139	2,814	-	2,471	343
인천	197	4,964	201	4,443	320
충북	464	5,445	1,229	3,846	370
경남	696	6,437	2,930	2,766	741
경북	946	5,334	1,199	2,471	1,664
전남	577	7,295	93	5,947	1,255
전북	402	6,723	666	4,421	1,636
합계	5,662	66,787	10,030	46,083	10,674

〈표 2〉 2014년 문화재 상시관리 인력 현황

(단위: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계
전체 인원	10	7	14	12	10	8	19	-	32	36	43	49	42	84	67	42	49	524
가능 자격자	-	-	-	1	-	-	-	-	-	1	2	-	4	4	2	2	-	16

주: 1. 문화재 상시관리 인력은 상시관리에만 투입되며, 문화재 임시관리 인력은 상시관리와 임시관리 모두에 투입됨.  
2. 제시된 지역 이외의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 &lt;보 기&gt;

- ㄱ. 2012년 경기도 문화재 관리인력은 경미수리를 일인당 평균 약 38건 수행하였다.
- ㄴ. 제초청소가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의 기능 자격자 수는 제초청소가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의 기능 자격자 수와 동일하다.
- ㄷ. 상시관리 인력 중 기능 자격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모니터링 건수나 경미수리 건수보다 제초청소 건수가 더 많다.
- ㄹ. 실적에서 모니터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실적에서 경미수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역보다 상시관리 인력이 1.5배 이상이다.
- ㅁ. 상시관리 인력이 5번째로 많은 지역은 상시관리 인력이 6번째로 적은 지역보다 기능 자격자수가 많다.

- ①  $\neg$ ,  $\perp$   
②  $\neg$ ,  $\exists$   
③  $\perp$ ,  $\sqsubset$   
④  $\perp$ ,  $\square$   
⑤  $\sqsubset$ ,  $\exists$ ,  $\square$

16. 다음 <표>와 <그림>은 4년 주기로 열리는 A 단거리 달리기 대회  
의 연도별 · 성별 우승기록에 대한 자료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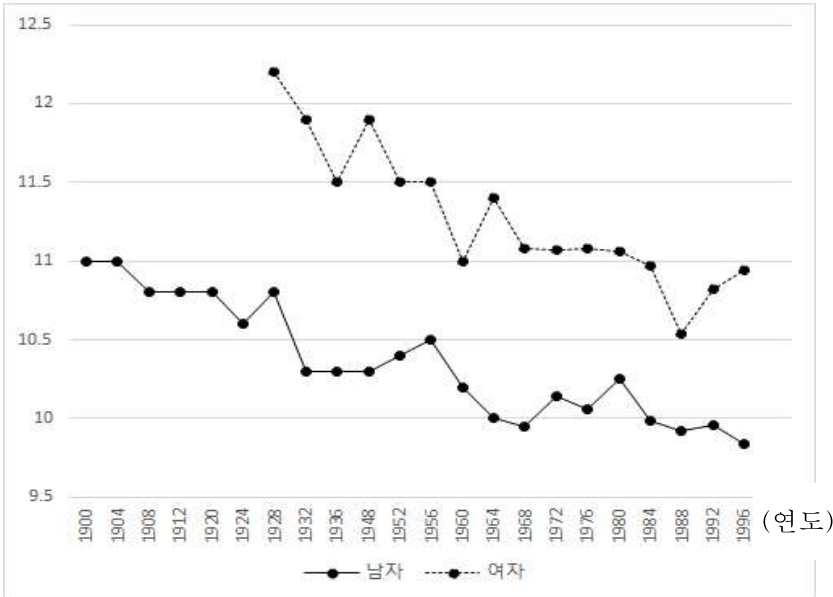
<표> A 단거리 달리기 대회의 연도별 우승 기록

(단위: 초)

연도	남자	여자	연도	남자	여자
1900	11	-	1956	10.5	11.5
1904	11	-	1960	10.2	11
1908	10.8	-	1964	10	11.4
1912	10.8	-	1968	9.95	11.08
1920	10.8	-	1972	10.14	11.07
1924	10.6	-	1976	10.06	11.08
1928	10.8	12.2	1980	10.25	11.06
1932	10.3	11.9	1984	9.99	10.97
1936	10.3	11.5	1988	9.92	10.54
1948	10.3	11.9	1992	9.96	10.82
1952	10.4	11.5	1996	9.84	10.94

<그림> A 단거리 달리기 대회의 연도별 우승 기록

우승기록 (단위: 초)



<정 보>

위의 자료를 이용한 패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우승기록과 연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추세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추세식: 우승기록 =  $47.03 - 0.018 \times \text{연도} - 14.84 \times \text{성별} + 0.007 \times (\text{성별} \times \text{연도})$   
여기서 '성별'은 남자이면 1이고 여자이면 0이다.

<보 기>

- ㄱ. 주어진 기간 중에서 남녀 우승기록의 차이가 가장 작았던 연도는 1988년이다.
- ㄴ. 추세식에 의하면 남자 우승기록은 여자 우승기록보다 감소 추세가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 ㄷ. 추세식에 의하면 2500년에도 남자 우승기록은 여자 우승기록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 ㄹ. 추세식에 의하면 2000년의 남자 우승기록은 여자 우승기록보다 0.84초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17. 다음 <표>는 45km 떨어진 A, B 두 지점 사이의 평균속도를 기준으로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구간단속시스템에서 얻은 자료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자동차별 지점 A, 지점 B 통과시각

구분	지점 A 통과시각	지점 B 통과시각
자동차 1	9:50 am	10:20 am
자동차 2	9:52 am	10:19 am
자동차 3	9:53 am	10:26 am
자동차 4	9:54 am	10:30 am

<정 보>

- 지점 A를 당일 오전 9:50에서 오전 9:55 사이에 통과하고 지점 B를 당일 오전 10:30 이전에 통과한 자동차들은 <표>의 자동차들 뿐이다.
- 이 구간에서의 법정 최고속도는 90km/h이고, 최저 시속 제한은 없다.
- 이 구간단속시스템에 의해 평균속도가 90km/h 초과로 측정될 경우 과속범칙금이 부과된다.
- 이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 구간에서의 다른 과속 단속 자료나 장비는 없다.
- 두 지점 사이에서는 진입, 이탈이 불가능하다.

<보 기>

- ㄱ. <표>에 의하면 기록된 네 자동차 중 과속범칙금 부과대상이 있다.
- ㄴ. <표>에 기록된 네 자동차 중 과속범칙금 부과대상이 아닌 자동차들은 해당 구간에서 법정 최고속도를 넘긴 적이 없다.
- ㄷ. 지점 A를 당일 오전 9:50에서 오전 9:55 사이에 통과하였지만 <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과속범칙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18. 다음 <표>는 2014년의 화장품 시장 규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주요국의 전체 화장품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시장 규모 (전년대비 증가율)	점유율
1	미국	38,773(2.15)	14.93
2	중국	26,742(10.10)	10.29
3	일본	23,464(0.80)	9.03
4	독일	15,497(2.39)	5.97
5	브라질	15,229(8.12)	5.86
6	프랑스	14,252(1.93)	5.49
7	영국	11,969(3.34)	4.61
8	이탈리아	10,414(2.01)	4.01
9	러시아	8,111(5.76)	3.12
10	한국	7,427(4.57)	2.86
11	스페인	6,859(1.21)	2.64
12	인도	6,749(12.08)	2.60
13	멕시코	6,475(5.22)	2.49
14	캐나다	5,802(3.20)	2.23
15	호주	4,209(2.52)	1.62

주: 전체 화장품 시장은 메이크업 화장품 시장과 기초 화장품 시장으로 이루어짐.

<표 2> 주요국의 메이크업 화장품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시장 규모 (전년대비 증가율)	점유율
1	미국	7,176(2.42)	18.29
2	일본	4,541(1.49)	11.58
3	브라질	2,931(11.75)	7.47
4	영국	2,278(4.14)	5.81
5	독일	2,156(4.96)	5.50
6	중국	1,990(8.53)	5.07
7	프랑스	1,962(2.64)	5.00
8	러시아	1,787(3.55)	4.56
9	이탈리아	1,367(0.34)	3.49
10	한국	1,081(3.92)	2.76
11	멕시코	1,000(4.28)	2.55
12	호주	917(2.72)	2.34
13	캐나다	839(3.32)	2.14
14	스페인	659(-1.06)	1.68
15	스웨덴	638(4.61)	1.63

주: <표 1>, <표 2>의 전년대비 증가율 및 점유율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보 기> —
- ㄱ. <표>에 나타난 국가 중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의 순위보다 메이크업 화장품 시장에서의 순위가 높은 국가는 8개 국가이다.
  - ㄴ. 전체 국가 중 2014년 전체 화장품 시장 규모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5% 미만인 국가는 10개 국가이다.
  - ㄷ. 세계의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메이크업 화장품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이다.
  - ㄹ. 기초 화장품 시장에서의 1위부터 3위까지의 국가 순위는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의 1위부터 3위까지의 국가 순위와 동일하다.

- ①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19~20] 다음 <표>는 A공단의 중장기 재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표 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재무전망

(단위: 조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산	174.7	179.3	181.3	181.9	181.1
부채	( )	141.9	( )	141.1	( )
금융부채	97.4	96.9	94.4	93.4	91.1
공사채 등	68.1	62.7	61.0	60.4	58.9
비금융부채	41.5	45.0	47.5	47.7	48.0
영업이익	1.1	1.3	1.1	0.5	0.2
당기순이익	0.9	1.1	1.1	0.5	0.3

<표 2> 항목별 부채감축 계획

(단위: 억원, %)

세부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부채감축 계획 합계		84,603 (100.0)	110,955 (100.0)	159,533 (100.0)	484,991 (100.0)
사업조정	45,609 (35.3)	46,637 (55.1)	61,492 (55.4)	91,232 (57.2)	244,970 ( )
사업시기 조정	39,609 (30.5)	31,663 (37.4)	29,410 ( )	48,945 ( )	149,627 (30.9)
자산매각	169 (0.1)	2,455 (2.9)	1,414 (1.3)	11,865 (7.5)	15,903 (3.3)
경영효율화	( ) (3.4)	7,314 (8.7)	10,738 (9.7)	7,194 (4.5)	29,686 ( )
총력판매	20,740 (16.0)	( ) (16.2)	20,635 (18.6)	( ) (18.9)	85,280 (17.6)
사업방식 변경	57,147 ( )	10,490 (12.4)	10,490 ( )	10,354 (6.5)	88,481 (18.2)
기타	1,795 (1.4)	4,027 (4.8)	6,186 (5.6)	8,663 (5.4)	20,671 ( )

주: 괄호 안의 비중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표 3>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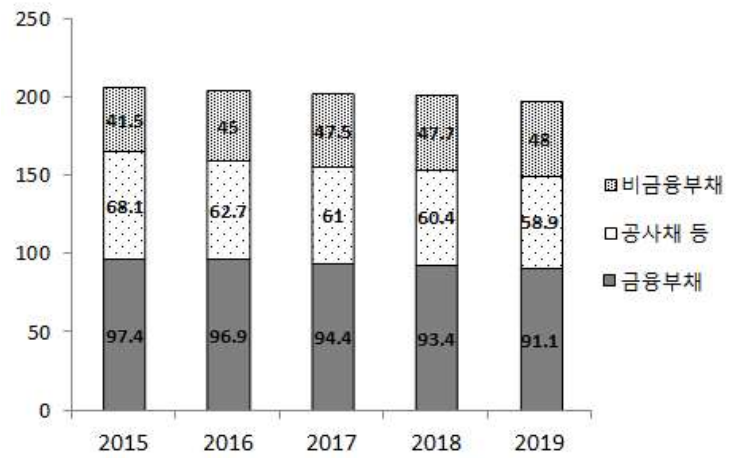
	2015년 (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증감	
						B-A	(B-A)/A
합계 <민간자본을 포함한 전체 사업규모>	( ) <20.8>	17.6 <21.8>	( ) <22.5>	14.5 <16.8>	14.0 <15.9>	-4.3	-23.5
공공주택	7.0	5.9	4.1	4.5	4.9	-2.1	( )
신도시· 택지	4.8	4.4	7.7	6.2	5.0	0.2	4.2
국책사업	3.4	3.7	2.9	1.6	1.4	-2.0	-58.8
도시재생	0.8	1.2	0.5	0.6	1.0	0.2	25.0
임대운영	1.3	1.3	1.4	1.5	1.5	0.2	15.4
기타	1.0	1.1	0.7	0.1	0.2	-0.8	-80.0

주: 1. 2010~2014년 기간 중에는 민간자본을 포함하여 총 105조원이 투입되었음(결산기준으로 2010년 26.3조원, 2011년 21.1조원, 2012년 20.7조원, 2013년 20.3조원, 2014년 16.6조원).  
2. 상기 투자계획은 2015년부터 사업다각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제외한 금액이며, 민간자본을 포함한 전체 사업규모는 < >안을 참조할 것

19. 다음 중 위의 <표>들을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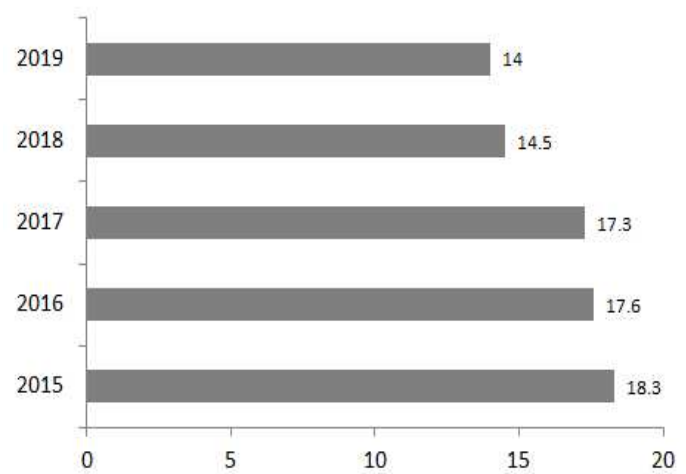
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2015~2019년 부채 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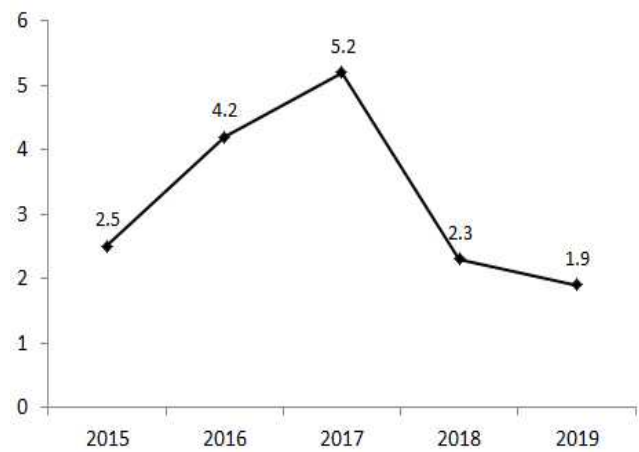
② 2015~2019년 민간자본을 제외한 투자계획 합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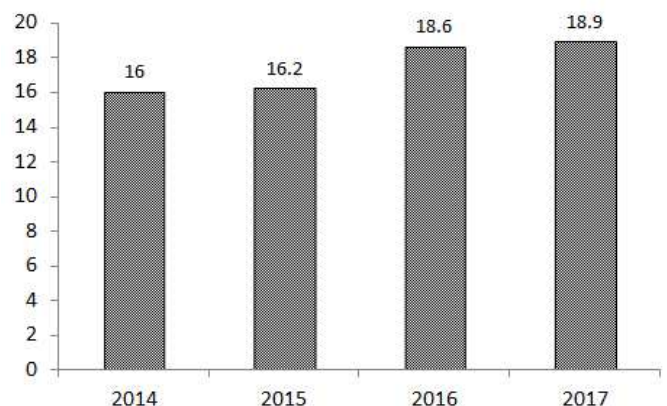
③ 2015~2019년 민간자본 투자계획

(단위: 조원)



④ 2014~2017년 부채감축 계획 중 총력판매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⑤ 2014~2017년 부채감축 계획 합계의 항목별 비중  
(단위: %)

- ① 2008~2016년 연평균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다.  
② 2009년 이후 의무지출은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③ 의무지출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2008년 대비 2016년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항목은 복지분야 의무지출이다.  
④ 2008년 대비 2016년의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액은 다른 3개의 의무지출 증가액을 더한 값보다 크다.  
⑤ 의무지출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2009년 이후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는 의무지출은 복지분야가 유일하다.

20. 위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16~2019년 사업별 투자계획에서 합계 대비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② 민간자본을 제외한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는 2015년 7조원에서 2019년 4.9조원으로 30% 감소될 전망이다.  
③ 전체 부채감축계획 합계에서 사업시기 조정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0.5%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 약 30.7%로 계획되어 있다.  
④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를 때, 총력판매를 통한 부채감축 계획규모는 영업이익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해가 부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해의 1.4배 이상이다.  
⑤ 2017년에 투자될 민간자본을 포함하는 전체 사업 규모는 2013년에 투자된 규모보다 10% 이상 증가하였다.

21. 다음 <표>는 2008~2016년 정부의 의무지출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08~2016년 의무지출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지출(A)	262.8	301.8	292.8	309.1	325.4	342.0	355.8	375.4	386.7
의무지출(B)	114.9	123.3	129.5	141.1	152.3	158.4	167.3	172.6	183.2
의무지출비중(B/A×100)	43.7	40.9		45.6		46.3	47.0	46.0	47.4

주: 총지출=의무지출+ 재량지출

<표 2> 2008~2016년 성질별 의무지출 추이

(단위: 조원)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이전재원	59.6	61.4	59.7	65.5	71.5	76.6	76.6	74.3	77.4
복지	39.8	45.9	49.4	53.3	58.3	62.2	69.8	77.5	83.1
이자지출	11.6	12.6	16.2	17.9	17.3	15.5	16.8	16.5	18
기타의무지출	3.9	3.4	4.2	4.4	5.2	4.1	4.1	4.3	4.7
합 계	114.9	123.3	129.5	141.1	152.3	158.4	167.3	172.6	183.2

주: 의무지출=지방이전재원+ 복지분야 의무지출+ 이자지출+ 기타의무지출

22. 다음 <표>는 가계소득수준과 문화센터 이용빈도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가계소득에 따른 문화센터 이용빈도

(단위: 명)

가계소득	문화센터 이용빈도					합 계
	한 달에 8번 이상	한 달에 6~7번	한 달에 4~5번	한 달에 2~3번	한 달에 1번 이하	
200만원 미만	50	240	190	140	190	810
200~400만원 미만	130	500	330	310	250	1,520
400~600만원 미만	90	390	250	120	90	940
600만원 이상	130	350	190	50	50	770
계	400	1,480	960	620	580	

- ① 문화센터를 한 달에 1번 이하 이용하는 사람들 중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약 32.8%이다.  
② 문화센터를 한 달에 8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 중 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40.5%이다.  
③ 가계소득이 200~4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약 37.6%이다.  
④ 가계소득이 400~600만원 미만인 사람들 중 문화센터를 한 달에 2~3번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약 12.8%이다.  
⑤ 모든 가계소득 집단에서 문화센터를 한 달에 6~7번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23. 다음 <표>는 2015년 5~10월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2015. 10	2015. 9	2015. 8	2015. 7	2015. 6	2015. 5
전국	161.8	162.1	161.3	160.2	159.1	157.6
서울	145.7	145.3	144.2	143.0	141.8	140.0
도심권	147.1	145.0	143.3	142.7	141.8	139.6
동북권	162.3	161.9	160.5	159.3	157.8	155.8
동남권	129.3	128.5	127.3	126.5	125.8	124.1
서북권	154.3	153.9	153.3	152.4	151.2	150.3
서남권	149.7	149.9	148.9	147.2	145.8	143.6
부산	187.6	186.1	184.1	182.0	180.5	179.1
대구	171.2	176.1	175.4	173.6	171.3	168.3
인천	158.2	158.6	157.6	155.9	154.7	152.9
광주	181.9	182.6	181.0	179.1	177.9	176.7
대전	133.7	134.2	134.4	133.9	133.6	133.0
울산	220.1	220.4	218.8	215.6	212.7	209.4
세종	122.5	124.8	123.5	123.5	123.4	122.8
경기	146.2	146.4	145.7	144.8	143.8	142.4
강원	150.7	149.6	149.4	147.6	146.5	144.7
충북	167.1	167.8	168.1	168.1	168.4	167.1
충남	147.0	147.7	147.5	147.0	147.2	146.1
전북	174.1	176.6	176.3	175.4	174.2	173.7
전남	186.3	185.9	184.5	183.7	181.6	181.0
경북	172.7	173.6	174.3	174.6	174.1	172.7
경남	181.1	181.2	180.6	179.9	179.0	178.2
제주	233.7	231.9	218.3	216.2	207.6	206.0

주: 1.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 각 지역별 기준시점(2006년 1월)의 가격을 100으로 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의 상대가격을 표시한 지수  
 2. 서울의 생활권역은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임.

<보 기>

- ㄱ.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서남권을 제외한 모든 생활권역에서 조사기간 동안 매달 상승하였다.
- ㄴ. 조사기간 동안 서울 동남권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세종보다 높다.
- ㄷ. 2015년 10월 현재, 기준시점 대비 실거래 가격의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이다.
- ㄹ. 2015년 5월 대비 10월 제주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15% 이상 상승하였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ㄹ
- ⑤ ㄷ, ㄹ

24. 다음 <표>는 중고령층 근로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중고령층 근로자의 산업, 직업별 주당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남	여
전체		45.7	46.8	43.7
산업	농림어업	43.9	46.8	40.1
	제조업(광업 포함)	45.5	45.7	45.2
	건설업	41.9	41.9	41.4
	도소매/음식숙박업	51.9	54.8	49.8
	전기/운수/통신/금융	46.4	47.3	40.7
	기타서비스업	43.5	45.8	40.1
직업	관리자	44.8	44.5	46.6
	(준)전문가	43.8	44.5	42.1
	사무직	44.2	44.6	42.6
	서비스근로자	49.5	54.4	47.4
	판매근로자	51.4	53.3	50.0
	농림어업 숙련 근로자	44.4	47.0	40.4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44.5	44.5	44.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8.4	48.4	48.7
	단순노무 종사자	42.6	45.7	38.8

- ① 중고령층 단순노무 종사자의 과반수는 남성이다.
- ② 전체 중고령층 근로자를 산업별로 살펴볼 때 도소매/음식숙박업 근로자 수가 건설업 근로자 수의 2배라면, 이 두 산업 근로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48시간 이상이다.
- ③ 직업별로 볼 때 중고령층 판매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은 45%를 넘지 않는다.
- ④ 1년을 52주로 간주할 때 산업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중고령층 남성근로자의 연간평균근로시간은 동 산업에 종사하는 중고령층 여성근로자의 연간평균근로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많다.
- ⑤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층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전체 중고령층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

25. 다음 <표>는 2006~2014년 A능력검정시험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2006~2014년 A능력검정시험 시행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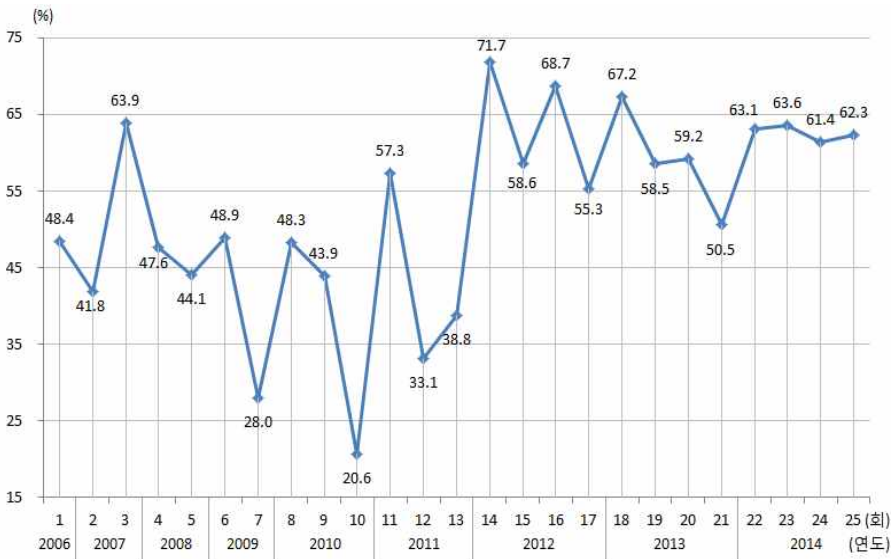
연도	응시인원	합격인원	평균 합격률	연간 실시횟수 및 시험종류
2006	15,395	7,446	48.4	연 1회 시행(3~6급)
2007	46,436	24,332	52.4	연 2회 시행(1~6급)
2008	59,750	27,491	46.0	연 2회 시행(초급, 3급, 4급, 고급)
2009	76,577	28,530		연 2회 시행(초급, 3급, 4급, 고급)
2010	81,179	30,881	38.0	연 3회 시행(초급, 3급, 4급, 고급)
2011	118,309	48,258	40.8	연 3회 시행(초급, 중급, 고급)
2012	157,015	101,045		연 4회 시행(초급, 중급, 고급)
2013	340,801	204,228		연 4회 시행(초급, 중급, 고급)
2014	320,000	200,220		연 4회 시행(초급, 중급, 고급)

<표 2> A능력검정시험 2012~2014년 성과지표

성과지표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시험 응시자 수 (만명)	목표	9	18	25
	실적	15.7	34	32
	달성도			
A능력검정시험 운영 만족도 조사 (점)	목표	70	71	72
	실적	70	73.2	74.2
	달성도	100	103	103

주: 달성도는  $\frac{\text{실적}}{\text{목표}} \times 100$ 한 값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그림> A능력검정시험 회차별 합격률 추세



- 주어진 기간 중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해는 두 성과지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다.
- 주어진 기간 중 합격률이 두 번째로 낮았던 회차가 있었던 연도의 평균 합격률은 합격률이 세 번째로 낮았던 회차가 있었던 연도의 평균 합격률보다 높다.
- 2012~2014년 중 합격인원이 가장 많은 해는 시험 응시자 수 성과지표 달성도도 제일 높다.
- 주어진 기간 중 직전 회차와 합격률 차이가 가장 작은 회차는 직전 회차와 합격률 차이가 가장 큰 회차와 합격률이 8%p 이상 차이 난다.
- 2008~2013년 중 전년대비 응시인원의 증가율이 두 번째로 큰 해는 2012년이다.

26. 다음 <표>는 강수 유무를 예측하는 탐지방법별 예측수준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계절별 강수 예측 방법들의 예측수준 현황

(단위: 수)

			강수 관측 결과					
			A 방법		B 방법		C 방법	
			강수 (OT)	없음 (ON)	강수	없음	강수	없음
강수 예 측 결 과	봄·가을	강수 (DT)	65	30	55	40	25	75
		없음 (DN)	35	70	45	60	75	25
	여름	강수	60	50	50	50	20	70
		없음	40	50	50	50	80	30
	겨울	강수	70	20	60	30	30	80
		없음	30	80	40	70	70	20

<정 보>

$$\text{탐지율(PD; Probability of Detection)} = \frac{DT \cap OT}{OT}$$

$$\text{정확도(AR; Accuracy Rate)} = \frac{DT \cap OT + DN \cap ON}{OT + ON}$$

<보 기>

- 봄·가을에는 탐지방법에 관계없이 PD가 항상 AR보다 높게 나타난다.
- 모든 방법 및 계절에서 AR이 가장 높은 경우는 A 방법을 봄·가을에 적용한 경우이다.
- 계절에 상관없이 PD가 가장 높은 방법은 A 방법이다.
- PD와 AR의 합은 탐지방법에 관계없이 여름에 가장 낮다.

- ㄱ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ㄷ, ㄹ

27. 다음 <표>는 원양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량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A~E(가다랑어, 황다랑어, 대구, 삼치류, 오징어류)에 해당하는 5개의 어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원양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량  
(단위: 톤,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A	생산량	216,720	173,334	211,891	200,866	229,588
	생산금액	321,838	344,770	563,027	427,513	329,163
B	생산량	67,138	45,736	60,436	44,013	63,971
	생산금액	201,596	168,034	170,733	133,170	163,068
명 태	생산량	46,794	48,793	39,025	24,341	31,624
	생산금액	64,359	67,307	45,972	32,662	49,479
새꼬리민 태	생산량	10,852	12,447	10,100	8,261	8,681
	생산금액	19,030	25,922	21,540	14,960	18,209
민대구	생산량	4,139	4,763	4,007	3,819	3,162
	생산금액	10,072	13,136	11,090	10,912	8,689
C	생산량	4,479	4,276	4,039	2,300	2,415
	생산금액	7,103	10,464	8,675	5,018	8,426
D	생산량	3,765	4,583	5,365	2,025	1,689
	생산금액	4,209	6,426	9,236	2,237	1,619
남빙양크릴	생산량	35,843	24,362	25,956	38,117	51,889
	생산금액	44,897	32,000	36,305	55,933	65,895
E	생산량	65,416	70,130	81,526	100,129	167,023
	생산금액	145,113	240,293	193,081	219,647	254,684

주: 생산금액 = 생산량 × 톤당 생산가격

<조 건>

- 2014년 생산금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어종은 명태, 대구, 새꼬리민태, 황다랑어, 오징어류, 남빙양크릴이다.
- 2013년에는 오징어류의 톤당 생산가격이 대구의 톤당 생산가격보다 높고, 2014년에는 삼치류의 톤당 생산가격이 가장 낮다.
- 2010~2013년 황다랑어의 톤당 생산가격은 민대구보다 항상 높았다.

- |   |          |          |          |          |          |
|---|----------|----------|----------|----------|----------|
|   | <u>A</u> | <u>B</u> | <u>C</u> | <u>D</u> | <u>E</u> |
| ① | 가다랑어     | 황다랑어     | 대구       | 삼치류      | 오징어류     |
| ② | 삼치류      | 황다랑어     | 오징어류     | 가다랑어     | 대구       |
| ③ | 가다랑어     | 오징어류     | 대구       | 삼치류      | 황다랑어     |
| ④ | 삼치류      | 오징어류     | 황다랑어     | 가다랑어     | 대구       |
| ⑤ | 가다랑어     | 황다랑어     | 오징어류     | 삼치류      | 대구       |

28. 다음 <표>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조 사 대 상 기 관	전 체		1,547	2,000	2,415	3,097	3,314	
	의료기관		1,453	1,814	2,091	2,530	2,497	
	유치업자		94	186	324	567	817	
	응답 기관	전체	542	898	982	1,176	1,590	
		의료기관	508	844	875	1,028	1,290	
		유치업자	34	54	107	148	300	
		무실적	전체	926	788	610	847	1,280
			의료기관	872	731	508	715	943
			유치업자	54	57	102	132	337
	무응답 기관	전체	79	314	823	1,074	444	
		의료기관	73	239	708	787	264	
		유치업자	6	75	115	287	180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계)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 ① 조사대상기관 중 유치업자의 비중은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 ② 2010년 이후 조사대상기관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작은 연도는 2013년이다.
- ③ 2010년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매년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하였다.
- ④ 2013년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 중 유치업자의 비중은 같은 해 실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 중 유치업자의 비중보다 작다.
- ⑤ 2011년 실적이 있는 기관만을 고려하였을 때, 한 기관당 유치한 외국인환자 수는 약 124.5명이다.

29. 다음 <표>는 A국의 철도사고 및 철도수송실적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A국 철도사고 현황 및 철도수송실적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철도사고 건수(건)			317	277	250	232	209
철도사고 피해 현황	인명 피해(명)	사망	135	121	109	96	80
		중상	136	87	81	83	82
		경상	74	64	59	129	518
	재산피해(백만원)		1,061	328	763	13,903	7,641
철도수송 실적	여객(10억명·km)		59.09	64.22	65.73	68.80	70.50
	화물(10억톤·km)		9.45	9.70	10.19	10.06	9.56

<보 고 서>

A국 교통부는 철도분야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부응하여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표>의 통계수치를 통해서 일부 확인되고 있다.

㉠ 2011~2014년 철도수송실적이 여객·화물 분야 모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동 기간 철도사고 건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 략)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와 반대로 경상자수를 포함한 총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현황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부정적인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철도사고로 인한 경상자수는 2013년, 2014년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2010년 대비 7배 이상, 2013년 대비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경상자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 철도사고 인적피해지수 [=사망자수+(중상자수×0.5)+(경상자수×0.2)] 또한 2010년 대비 2014년에 증가하였다.

㉣ 그 밖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철도사고로 인한 총 재산피해액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재산피해액의 10배 이하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철도교통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선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철도사고의 양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① ㄱ, ㄴ  
 ③ ㄴ, ㄷ  
 ⑤ ㄷ, ㄹ
- ② ㄱ, ㄷ  
 ④ ㄴ, ㄹ

30. 다음 <표>는 기존 음식점 소속 배달원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 처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다음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배달원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		기존 음식점 소속 배달원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36.7%	63.3%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3.5%	6.0%
임금 체불 경험		11.6%	12.0%
분실·손실 책임 서약서 강요		72.9%	79.0%
급여명세서 미수령		64.9%	61.0%
안전장비 지급	안전모	27.8%	47.1%
	무릎보호대	71.3%	41.0%
4대 보험 가입	고용보험	16.0%	8.5%
	산재보험	33.0%	32.0%
	국민연금	8.8%	3.5%
	건강보험	9.2%	2.5%

주: 서울지역 배달원 450명(기존 음식점 소속 250명, 배달대행업체 소속 2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보 기>

- ㄱ. 설문에 응답한 배달원 중 임금 체불 경험이 있는 배달원의 수는 기존 음식점 소속 배달원보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더 많다.
- ㄴ. 설문에 응답한 기존 음식점 소속 배달원 중 적어도 37.8%는 분실·손실 책임 서약서를 강요받고, 급여명세서도 미수령한 경험이 있다.
- ㄷ. 설문에 응답한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 중 41%는 안전모와 무릎보호대를 모두 지급받았다.
- ㄹ. 안전모를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기존 음식점 소속 배달원의 수는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보다 많다.

- ① ㄱ, ㄴ  
 ③ ㄴ, ㄷ  
 ⑤ ㄷ, ㄹ
- ② ㄱ, ㄷ  
 ④ ㄴ, ㄹ



31. 다음 <표>는 부도 기업들과 정상 기업들에 대해 2가지의 예측모형을 적용하여 예측정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정보>를 참고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A 예측모형의 적용 결과

(단위: 개)

분 류		예측 부도 기업	예측 정상 기업	합계
실제 부도 기업 (a)	제조업	28	2	30
	비제조업	12	8	20
	소 계	40	10	50
실제 정상 기업 (b)	제조업	5	25	30
	비제조업	2	18	20
	소 계	7	43	50
전체 기업 (a+b)	제조업	33	27	60
	비제조업	14	26	40
	소 계	47	53	100

<표 2> B 예측모형의 적용 결과

(단위: 개)

분 류		예측 부도 기업	예측 정상 기업	합계
실제 부도 기업 (a)	제조업	25	5	30
	비제조업	17	3	20
	소 계	42	8	50
실제 정상 기업 (b)	제조업	8	22	30
	비제조업	4	16	20
	소 계	12	38	50
전체 기업 (a+b)	제조업	33	27	60
	비제조업	21	19	40
	소 계	54	46	100

주: A 예측모형이 적용된 산업별 실제 업체들은 B 예측모형이 적용된 기업들과 동일함.

<정 보>

- 총 예측 정확성 =  $\frac{\text{실제 분류와 예측 분류가 일치하는 기업수}}{\text{전체 기업수}}$
- 제1종 정확성(실제 부도 기업을 부도 기업으로 예측하는 정확성)  
=  $\frac{\text{실제 부도 기업} \cap \text{예측 부도 기업}}{\text{실제 부도 기업}}$
- 제2종 정확성(실제 정상 기업을 정상 기업으로 예측하는 정확성)  
=  $\frac{\text{실제 정상 기업} \cap \text{예측 정상 기업}}{\text{실제 정상 기업}}$   
정확성이 높을수록 우수한 예측모형이다.
- 총 예측 오류 =  $\frac{\text{실제 분류와 예측 분류가 불일치하는 기업수}}{\text{전체 기업수}}$
- 제1종 오류(실제 부도 기업을 정상 기업으로 예측하는 오류)  
=  $\frac{\text{실제 부도 기업} \cap \text{예측 정상 기업}}{\text{실제 부도 기업}}$
- 제2종 오류(실제 정상 기업을 부도 기업으로 예측하는 오류)  
=  $\frac{\text{실제 정상 기업} \cap \text{예측 부도 기업}}{\text{실제 정상 기업}}$   
오류가 낮을수록 우수한 예측모형이다.

- ① 제조업체에 대한 제1종 정확성 기준에서는 A예측모형이 B예측모형보다 우수하다.
- ② 비제조업체에 대한 제2종 오류 기준에서는 A예측모형이 B예측모형보다 우수하다.
- ③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를 합산한 전체 기업에 대한 총 예측 정확성 기준에서는 A예측모형이 B예측모형보다 우수하다.
- ④ 총 예측 정확성 기준으로 볼 때 A예측모형은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제조업체에 대한 예측력이 우수하다.
- ⑤ 총 예측 오류 기준으로 볼 때 B예측모형은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제조업체에 대한 예측력이 우수하다.

32. 다음 <표>는 국가채무 유형별 구성내역과 변동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국가채무 유형별 구성내역과 변동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가채무 (GDP 대비)	299.2 (28.7)	309.0 (28.0)	359.6 (31.2)	392.1 (31.0)	420.6 (31.6)	443.1 (32.2)	489.9 (34.3)	533.2 (35.9)
중앙정부채무	289.1	297.9	346.1	373.7	402.9	425.1	464.1	503.1
국 채	280.5	289.4	337.5	367.1	397.1	420.0	459.5	498.1
국고채	230.5	239.3	280.9	310.1	340.1	362.9	400.7	438.3
국민주택채	43.3	44.9	48.3	49.0	48.9	49.5	51.3	52.8
외평채(외화)	6.7	5.2	8.3	8.0	8.1	7.6	7.5	7.0
차입금	5.7	5.3	5.4	3.5	2.5	2.3	1.9	2.6
국고채무부담행위	2.9	3.2	3.2	3.1	3.3	2.8	2.7	2.4
지방정부 순채무	10.1	11.1	13.5	18.4	17.7	18.0	25.8	30.1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로 이루어짐.  
2. <표>의 수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① 2008~2014년 중앙정부채무는 297.9조원에서 503.1조원으로 66% 이상 증가하였다.
- ② 2008~2014년 국고채가 199조원 증가하여 중앙정부채무 증가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③ 주어진 <표>에서 지방정부 순채무가 전년대비 감소한 해는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④ 2008년 GDP는 전년대비 3% 이상 증가하였다.
- ⑤ 주어진 <표>에서 국민주택채가 전년대비 감소한 해는 차입금도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33. ‘○○ 언론사 협회’는 ‘□□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각 언론사별로 최종 회원 수를 정한다. 다음은 ‘○○ 언론사 협회’ 회원 수 산정기준 및 ‘□□ 협회’에서 산정한 점수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 언론사 협회’ 회원 수 산정기준

구분	기본 회원 수	구체적 배정기준
1	15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50만 점 이상
2	13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20만 점 이상 50만 점 미만
3	11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10만 점 이상 20만 점 미만
4	9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5만 점 이상 10만 점 미만
5	7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2만 5천 점 이상 5만 점 미만
6	3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1만 2,500점 이상 2만 5천 점 미만
7	2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8천 점 이상 1만 2,500점 미만
8	1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4천 점 이상 8천 점 미만
9	0명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 4천 점 미만

주: 1. ‘□□ 협회’ 점수 가중평균치는 2012년 점수 비중을 70%, 2013년 점수 비중을 30%로 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함.  
2. 무가지(무료 배부 언론사), 영자신문은 기본 회원 수의 50%, 경제지는 기본 회원 수의 70%를 최종 회원 수로 배정함. 단, 이 경우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표 2> ‘□□ 협회’ 에서 산정한 각 언론사 2012년, 2013년 점수

언론사명	2012년 ‘□□ 협회’ 점수	2013년 ‘□□ 협회’ 점수
A 언론사	1,769,000점	1,757,000점
B 언론사	517,000점	507,000점
C 언론사	306,000점	299,000점
D 언론사	206,000점	204,000점
E 언론사	85,000점	79,000점
F 언론사	79,000점	39,000점
G 언론사	33,000점	31,000점
H 언론사	20,000점	20,000점
I 언론사	0점	5,000점

주: 단, B, E, H 언론사는 경제지, F 언론사는 무가지, G 언론사는 영자신문임.

<보 기>

- ㄱ. E 언론사의 최종 회원 수는 9명이다.
- ㄴ. <표 2>에 언급된 언론사 중 최종 회원 수가 2명인 언론사가 있다.
- ㄷ. B 언론사의 최종 회원 수는 C 언론사의 최종 회원 수보다 많다.
- ㄹ. <표 2>에 언급된 언론사 중 최종 회원 수가 7명 이상인 언론사는 최종 회원 수가 7명 미만인 언론사 수보다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34. 다음 <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

(단위: 백만 톤)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총배출량	295.6	436.6	503.0	559.9	657.1	685.8	688.4
에너지	241.5	354.7	411.9	468.8	568.6	597.6	600.3
산업공정	20.4	42.6	49.6	53.9	52.4	51.7	51.3
농업	23.8	24.5	23.7	21.5	22	21.9	22
폐기물	9.9	14.8	17.8	15.7	14.1	14.6	14.8

<표 2> 온실가스별 배출량

(단위: 백만 톤)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총배출량	295.6	436.6	503.0	559.9	657.1	685.8	688.4
CO2	252.8	386.1	442.3	494.8	594.0	623.4	625.7
CH4	32.0	29.6	29.3	28.7	29.3	29.6	29.8
N2O	9.6	14.4	18.3	22.1	13.3	13.9	14.2
HFCs	1.0	5.1	8.4	6.7	8.1	7.9	8.7
PFCs	-	-	2.2	2.7	2.1	2.2	2.4
SF6	0.2	1.4	2.5	4.9	10.3	8.8	7.6

<보 기>

- ㄱ. 2011년 CH4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ㄴ. 주어진 기간 중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연도는 1995년이다.
- ㄷ. 2000년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80% 이상은 CO2이다.
- ㄹ.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배출원은 에너지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5. 다음 <표>는 광역시별 중학교 소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에 근거할 때 C와 D에 해당하는 광역시로 옳은 것은?

<표> 광역시별 중학교 소재 현황

(단위: 개)

광역시	구분	중학교		
		전체	남자중학교	남녀공학
부산	전체	172	38	101
	국립	-	-	-
	공립	134	23	88
A	전체	124	13	102
	국립	1	-	1
	공립	89	-	87
B	전체	134	30	78
	국립	-	-	-
	공립	123	25	74
C	전체	89	9	73
	국립	1	-	1
	공립	63	-	63
D	전체	88	11	68
	국립	-	-	-
	공립	72	3	65
E	전체	62	5	53
	국립	-	-	-
	공립	58	4	50

주: 1. 전체 중학교는 국립·공립·사립/남자·여자·남녀공학으로 나뉜다.  
2. 광역시는 울산, 대전, 인천, 부산, 광주, 대구임.

<정 보>

- 울산, 대전, 인천은 부산보다 전체 중학교에서 사립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 남녀공학인 중학교의 수는 광주가 인천, 대구보다 적고 대전보다 많다.
- 울산의 공립 남자중학교의 수는 대전보다 많다.

- |          |          |
|----------|----------|
| <u>C</u> | <u>D</u> |
| ① 광주     | 대전       |
| ② 대전     | 울산       |
| ③ 광주     | 울산       |
| ④ 울산     | 대전       |
| ⑤ 대전     | 광주       |

36. 다음 <표>는 A회사와 B회사의 t시점과 (t+1)시점의 계약갱신 전이 확률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참고하여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계약갱신 전이확률

t 시점 \ (t+1) 시점	A회사	B회사
A회사	90%	10%
B회사	20%	80%

<정 보>

-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밀가루는 A, B회사가 독점공급을 하고, 제과점에서는 A, B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밀가루를 공급받으며 매 시점 공급계약을 갱신한다.
- 전이확률 표는 t시점에서 어떤 회사와 계약한 제과점이 (t+1) 시점에 어느 회사와 어떤 비율로 계약을 하는지 나타낸다.
- 향후 총 밀가루 매출규모는 일정하며 개별 제과점간의 밀가루 구매액은 차이가 없다.
- 계약갱신은 오직 <표>의 전이확률에 의존하고 확률구조는 불변이다.
- t=1 시점에서 총 밀가루 매출규모는 1,000억원이며 A회사가 60%, B회사가 40%를 점유하고 있다.

<보 기>

- ㄱ. t=1 시점에 A회사의 매출규모는 600억원이다.
- ㄴ. t=2 시점에 A회사의 매출규모는 540억원이다.
- ㄷ. t=3 시점에 A회사의 매출규모는 B회사의 약 1.4배이다.
- ㄹ. 어떤 시점에서든 B회사의 매출규모는 0이 되지 않는다.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 ③ ㄱ, ㄹ | ④ ㄴ, ㄹ |
| ⑤ ㄷ, ㄹ |        |

37. 다음 <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에 대한 자료이다. 아래의 그림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1> 성별, 학생유형별 아르바이트 급여형태 및 평균급여액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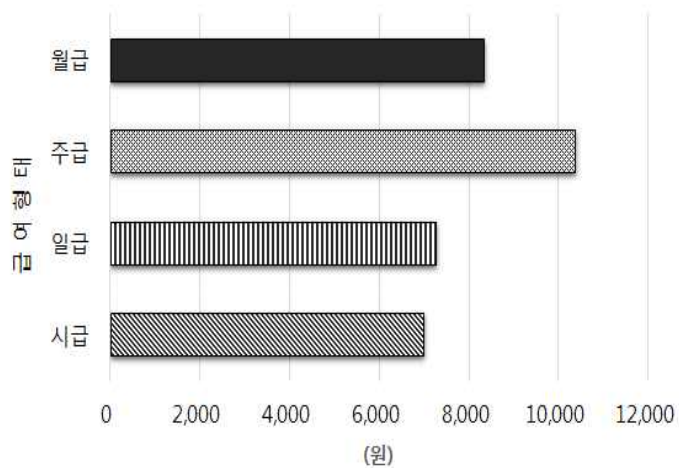
	전체	성별		학생유형별		평균 급여액
		남성	여성	대학생	대학원생	
시급	37.0	34.0	41.4	37.5	22.9	0.7
일급	15.3	14.7	16.3	15.8	2.6	5.8
주급	3.8	5.2	1.6	3.9	0.0	31.1
월급	42.3	44.0	39.9	41.2	74.5	83.3
성과급	1.5	2.0	0.8	1.6	0.0	37.2
계	100	100	100	100	100	

주: 1. 평균적으로 일급근로학생은 하루 8시간, 주급근로학생은 주 30시간, 월급근로학생은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25일을 근로함.  
2. <표>의 수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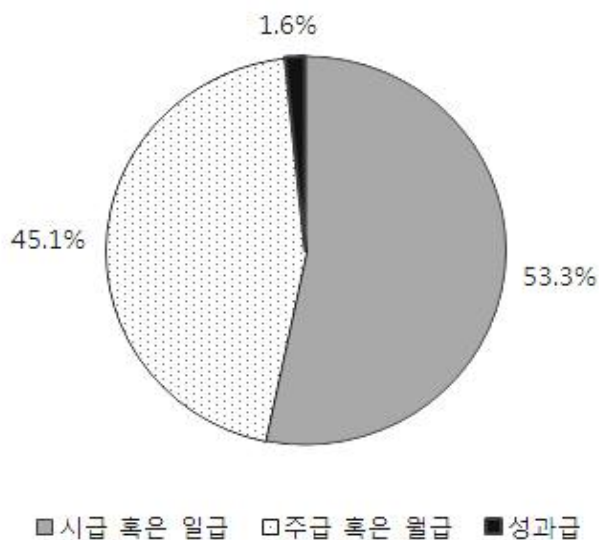
<표 2> 아르바이트를 하는 성별, 학생유형별 대학(원)생수  
(단위: 명)

	전체	성별		학생유형별	
		남성	여성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원)생수	877,987	521,091	356,896	848,357	29,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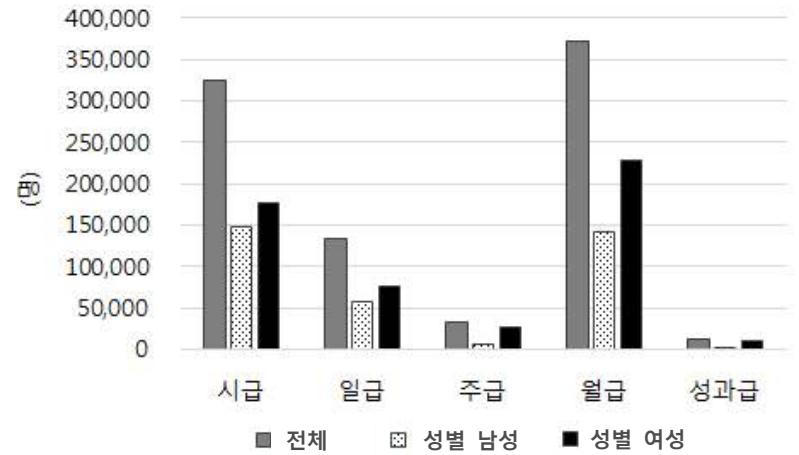
① 급여형태별 시간당 평균급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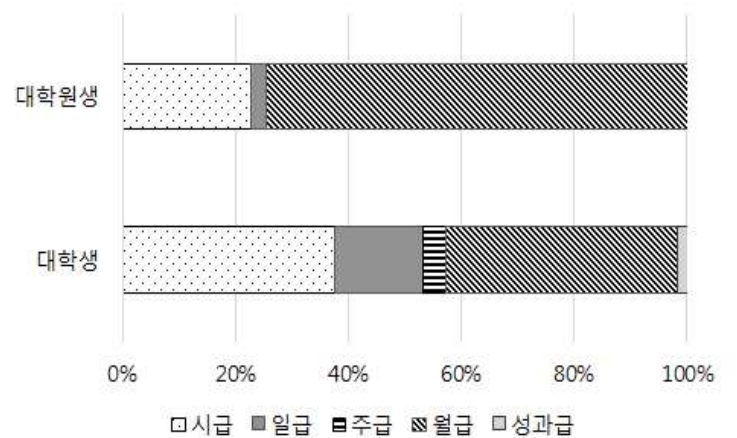
②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급여형태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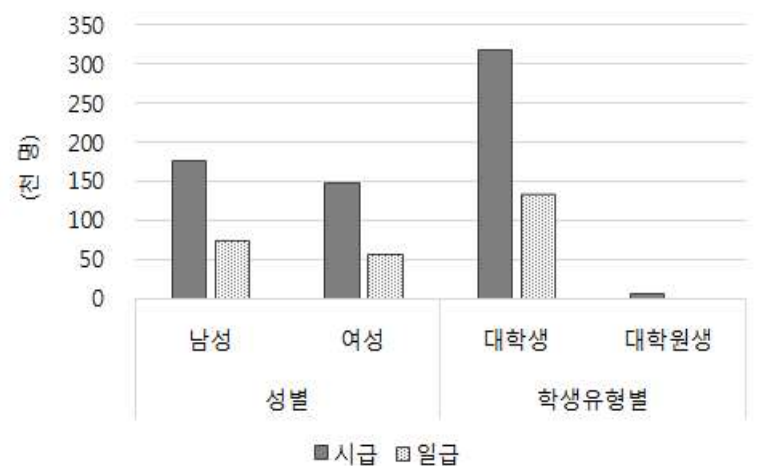
③ 아르바이트 급여형태별 대학생 수



④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아르바이트 급여형태별 비율



⑤ 시급 및 일급 형태의 아르바이트 대학(원)생수



38. 다음 <표>는 A~E기업의 재무 자료이다. <정보>를 참고하여 매입채무 상환시점부터 매출채권 회수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순서대로 각 기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재무 자료

(단위: 억원)

기업	매출액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A	1,000	50	30	20
B	2,000	40	80	50
C	1,500	80	30	50
D	2,500	60	90	25
E	3,000	80	30	20

<정 보>

<회전율과 회전기간>

$$\text{재고자산 회전율(회)} = \frac{\text{매출액}}{\text{재고자산}}, \text{재고자산 회전기간(일)} = \frac{365}{\text{재고자산 회전율}}$$

$$\text{매출채권 회전율(회)} = \frac{\text{매출액}}{\text{매출채권}}, \text{매출채권 회전기간(일)} = \frac{365}{\text{매출채권 회전율}}$$

$$\text{매입채무 회전율(회)} = \frac{\text{매출액}}{\text{매입채무}}, \text{매입채무 회전기간(일)} = \frac{365}{\text{매입채무 회전율}}$$

<영업주기(operating cycle)>



- ① B - A - C - D - E
- ② B - E - C - D - A
- ③ E - B - C - A - D
- ④ E - B - C - D - A
- ⑤ E - C - B - D - A

※ [39-40] 다음 <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기관장 평균연봉, 2014년도 경영성과를 나타낸 자료이다.

<표 1>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기관장 평균연봉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방 공사	지하철공사	111,908	106,514	115,371	116,418	108,631
	도시개발공사	103,157	101,310	102,933	104,619	100,978
	기타공사	83,407	86,579	85,796	90,855	85,086
지방공단		72,983	73,642	76,321	77,405	77,263

<표 2> 2014년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자산규모	부채규모	자본규모	부채비율
지방 공사	지하철공사	25,199,833	5,892,456	19,307,377	( )
	도시개발공사	58,723,590	41,845,618	16,877,972	( )
	기타공사	6,020,104	( )	3,161,238	90.4
지방공단		903,839	219,048	684,791	( )

$$\text{주: 부채비율} = \frac{\text{부채규모}}{\text{자본규모}} \times 100$$

39. 2014년 부채비율이 큰 순서대로 <표 2>의 기관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도시개발공사 - 지하철공사 - 기타공사 - 지방공단
- ② 도시개발공사 - 기타공사 - 지방공단 - 지하철공사
- ③ 도시개발공사 - 기타공사 - 지하철공사 - 지방공단
- ④ 도시개발공사 - 지하철공사 - 지방공단 - 기타공사
- ⑤ 도시개발공사 - 지방공단 - 지하철공사 - 기타공사

40.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2014년 기타공사의 부채규모는 지하철공사의 절반 이상이다.
- ㄴ. 2014년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지방공단의 경우 자본규모가 클수록 기관장 평균연봉도 높게 나타난다.
- ㄷ. 2014년 <표>의 모든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에 비해 자산규모, 부채규모, 자본규모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 ㄹ. 주어진 지방공사 중에서 2014년 기관장 평균연봉의 전년 대비 감소율이 가장 낮은 것은 도시개발공사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